



BHA 동문회 제공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 직접 IB를 거친 선배들이 부모님께 드립니다

과목 선택 · 점수 전략 · TOK & EE · 현실적인 학습 시간 · 가정에서 도와주는 법

왜 동문회가 이 자료를 만들었나요

“

지금 BHA 동문회에 있는 모든 졸업생들도 한때 부모님과 함께 이 과목 선택지를 마주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가 경고하는 실수들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 잘못된 이유로 HL 물리를 선택했고, EE 주제 정하기를 10월까지 미뤘고, TOK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건 IB의 공식 안내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120+

현재 활동 중인 동문 멘토 수

35개국+

졸업생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국가

2,400+

전 세계 BHA 동문 네트워크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01

IB DP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체 구조와 45점이 만들어지는 원리

02

과목 선택, 어떻게 하나요

HL과 SL의 차이, 흔한 실수, 진로별 조합

03

TOK와 EE, 왜 어려워 보일까요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부담을 줄이는 법

04

점수 전략 제대로 이해하기

점수는 어디서 나오고, 예상성적은 왜 중요한지

05

현실적인 시간 관리

주당 학습 시간과 시기별 부담 변화

06

선배들의 진짜 조언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솔직한 팁

01

IB DP,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가 실제로 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6개 과목군, 하나의 육각형

자녀는 아래 6개 과목군에서 하나씩 선택합니다 — 최소 3개(최대 4개)는 상급반(HL), 나머지는 표준반(SL)으로 이수합니다.



그룹 1

언어와 문학

Language A — 보통 자녀가 가장 능숙한 언어로, 문학을 깊이 분석합니다



그룹 2

언어 습득

제2(혹은 제3) 외국어



그룹 3

개인과 사회

역사, 경제, 심리학, 경영학 등



그룹 4

과학

생물, 화학, 물리, 환경시스템 등



그룹 5

수학

AA 또는 AI, 각각 HL/SL 선택 가능



그룹 6

예술

미술, 영화, 음악 (또는 사회 과학 계열에서 선택)
학교가 허락하는 범위 내

코어 — 세 과목을 하나로 묶는 핵심

6개 과목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최대 3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고,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식론 (TOK)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를 탐구합니다. 에세이와 전시회를 통해, 여러 과목에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예상 소요 시간
약 100시간



소논문 (EE)

자녀가 직접 정한 주제로, 본인이 공부 중인 과목 안에서 4,000단어 분량의 독립 연구 논문을 작성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
약 40시간



창의·체험·봉사 (CAS)

세 영역에 걸친 실제 활동을, 18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갑니다. 점수는 없지만, 디플로마 취득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
지속적

45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6개 과목 × 각 7점

= 최대 42점



각 과목은 1점(최저)부터 7점(최고)까지,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점됩니다.



최대 3점의 보너스 점수

TOK와 EE 조합으로 결정되며, A(최고)부터 E까지 채점됩니다. TOK나 EE 중 하나라도 E를 받으면, 총점과 상관없이 디플로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2 + 3 = 45$$

최대 가능 점수

24점이 합격의 기준선이지만, 실제로는 CAS 이수, 2점 미만 과목 없음, HL:SL 각각의 최소 점수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02

과목 선택하기

앞으로 2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HL과 SL,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상급반 (HL)

240시간 수업

- ✓ 내용이 더 깊고, 독립적인 사고가 많이 요구됩니다
- ✓ 6과목 중 최소 3개, 최대 4개까지 HL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대학들이 전공 관련 HL 과목 성적을 특히 눈여겨봅니다
- ✓ 학업 부담이 더 큼 — 선배들 체감상 SL보다 약 30~50% 더 많은 시간 투입

표준반 (SL)

150시간 수업

- ✓ 핵심 역량은 같지만, 깊이와 분량이 좀 더 가볍습니다
- ✓ 6과목 중 최소 2개는 SL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학생은 3개를 선택)
- ✓ 45점 만점 계산에 동일하게 온전히 반영됩니다
- ✓ 자녀가 상대적으로 약한 과목을 배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잘못된 이유로 HL을 고르는 것



"이게 더 있어 보이니까요."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HL 수학, HL 물리, HL 경제를 고릅니다. 감당할 준비가 됐거나 정말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 보여서"입니다.

결과는 4~5점에 그치는 성적입니다. 점수와 학습 의욕이 함께 떨어지고, 정작 자녀가 좋아했던 SL 과목들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HL은 정말 자신 있거나, 정말 필요한 과목으로 선택하세요.

- ✓ 이미 예상성적이 6~7점 수준인 과목
- ✓ 지망하는 대학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 (먼저 입학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 240시간을 버텨낼 만큼 자녀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과목

진로별 과목 조합 예시

 아래는 참고용 출발점일 뿐,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국가, 대학, 전공에 따라 요구 과목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지망 학교의 공식 입학 요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학 / 컴퓨터과학

흔한 조합: 수학 AA HL, 물리 HL, 그리고 화학·영어·제2외국어 중 일부와 SL 과목 하나

의학 / 생명과학

흔한 조합: 생물 HL, 화학 HL, 수학 SL 또는 HL — 정확한 요건은 국가와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경영 / 경제

흔한 조합: 경제와(또는) 수학 AA를 HL로 — 경영학 HL이 도움은 되지만 모든 대학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인문학 / 법학

흔한 조합: 영어·역사를 HL로 — 많은 법학 프로그램이 특정 과목보다 독해·작문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에서 모든 조합을 제공하지 않을 때



모든 학교가 모든 과목 조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학교 지원 자율학습(self-taught)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모국어가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다면, Language A: Literature SL(언어 B가 아닙니다)로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IB 코디네이터에게 일찍 문의하세요.



대학들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교마다 개설 과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합니다. 무리하게 없는 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가능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더 낫습니다.



11학년 봄까지는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시간표(과목 블록)는 일찍 확정됩니다. 제약사항을 미리 알릴수록,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이 남습니다.

03

TOK와 EE, 자세히 알아보기

직접 겪어본 선배들이 설명하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두 과제



지식론, 실제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TOK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녀가 배우는 모든 과목에 깔려 있는 전제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 역사학자와 과학자가 "안다"는 것을 왜 다르게 정의하는지, 본인의 편견이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를요.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전시회(TOK 주제와 연결된 사물 3개)와 에세이(정해진 제목 중 하나로 1,600단어).



선배의 팁

수업 중 어떤 생각이 떠오른 바로 그 순간에 전시회 사물 후보를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 — 마감 일주일 전이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사물은 마감에 쫓겨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가 알아차린 순간에서 나옵니다.

11학년부터 휴대폰에 "TOK 순간들"이라는 메모를 만들어 꾸준히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자녀를 지치게 하지 않을 주제 고르기

1

주제보다 과목을 먼저 정하세요

6~7점을 받고 있는 과목으로 고르세요 — EE 점수는 그 과목에 대한 숙련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2

거창함보다 좁고 명확하게

"2차 대전 속 여성의 역할"은 너무 넓습니다. "1943년 영국 배급제가 여성 대상 광고를 어떻게 바꿨는가"처럼 좁혀야 합니다.

3

빠르게 답해주는 지도교사를 찾으세요

지도 세션은 3~5회 정도뿐입니다. 유명한 선생님보다, 잘 응답해주는 선생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4

11학년 후반에 자료조사, 여름에 마무리

4,000단어가 짧아 보이지만, 마감에 쫓기며 학술 자료를 찾아 보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창의·체험·봉사, 간단히 정리하면



점수는 없지만, 빠뜨리면 디플로마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 협업으로 진행하는 진지한 CAS 프로젝트 1개(1개월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 세 영역에 걸친 지속적인 활동들
- ✓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 운동, 동아리, 무급 봉사활동 등 — 단, 유급 아르바이트는 CAS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사진과 짧은 메모는 그 순간 바로 남기고, 본격적인 소감문은 1~2주 뒤에 정리하세요 — 사진만 미루지 않으면 됩니다



CAS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BHA 인사이트의 “나에게 맞는 CAS 프로젝트 찾는 법” 글을 참고하세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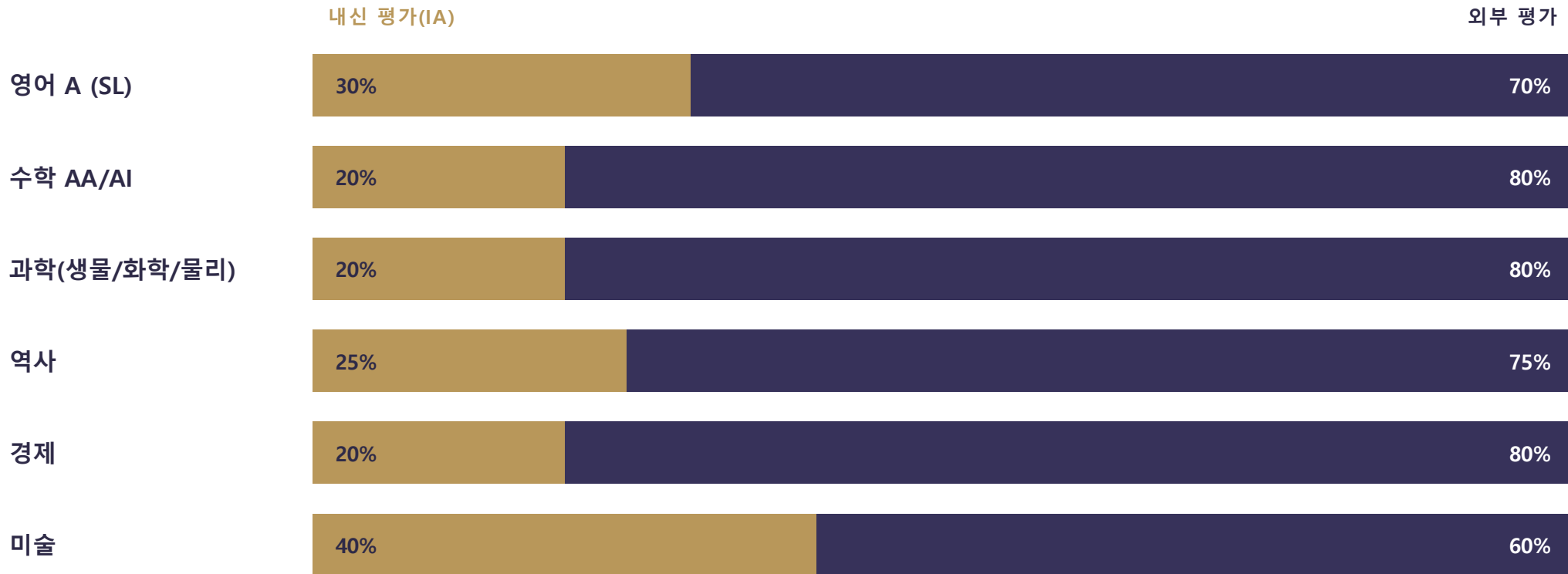
점수와 성적 전략

점수는 실제로 어디서 나오고, 예상성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신 평가 vs 외부 평가

모든 과목은 선생님이 채점하는 수행평가(IA)와 외부에서 채점되는 평가(EA) 두 가지로 나뉩니다. IA는 교사가 채점하고 IB가 조정·검토합니다. 과목에 따라 외부 채점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HL/SL 여부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비율은 IB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은: 수학·과학처럼 내신 비중이 낮은 과목은 시험 당일의 시간관리 능력이 결정적이니, 기출문제를 마지막 한 달이 아니라 미리미리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급 경계선의 함정

등급 경계선은 시험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IB는 “90% = 7점” 같은 고정된 비율표를 쓰지 않습니다. 매 시험 후, 채점관들이 실제 학생 답안을 정해진 평가기준에 비추어 검토하면서 등급 경계선을 정합니다 — 단순히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줄세우는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 정확한 기준선은 매년 조금씩 움직입니다.

즉, 모의고사에서 78%를 받았다고 반드시 6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안심해서도,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채점기준표(마크스킴)도 함께 보기



출제 동사 구분하기 (“분석하라” ≠ “설명하라”)



점수가 아니라 IB 방식의 구체적 피드백을 선생님께 요청하기



본인 답안을 7점 예시 답안과 직접 비교해보기

예상성적,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상성적은 실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 몇 달 전에, 대학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생님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수행평가·모의고사·수업 중 태도를 종합해 자녀의 최종 성적을 추정합니다.

선배들이 겪은 현실

조건부 합격이 깨지는 건 예상성적 자체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최종 결과가 그 조건에 못 미쳐서입니다. 모의고사와 수행평가 하나하나가 그 예상성적을 만드니, 전부 진짜 시험처럼 임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영국 등 예상성적 기반 시스템에서는 합격 통보가 예상성적으로 결정되고, 최종 결과로 확정됩니다. 미국처럼 종합평가를 하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일찍부터 과목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쌓도록 격려해주세요. “예상성적을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라고 직접 여쭙보게 하세요.

05

시간과 학업 부담

솔직한 주당 학습 시간과, 부담이 가장 커지는 시기



현실적인 주당 학습 시간

수업 외 주당 대략적인 학습 시간입니다 — 학생마다 다르지만, 선배들이 솔직하게 체감한 평균치입니다.

HL 과목 (평균)



주 6시간

SL 과목 (평균)



주 3.5시간

TOK



주 2시간

EE (집중 시기)



주 5시간

CAS (지속적)



주 2시간

대략적인 합계: 수업 외 주당 25~35시간 — 학교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는 정도의 부담입니다.

IB 스트레스 곡선 — 언제 가장 힘들어질까요

11학년 1학기

적응하는 시기

과목 선택이 설레는 시기 — 아직은 부담이 감당할 만합니다

11학년 2~3학기

EE 주제 정하기 + IA 시작

내신 마감이 처음 물리는 시기 — 여기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2학년 1학기

EE와 모의고사가 겹치는 시기

가장 힘든 구간 — EE 초안, 모의고사, IA 마감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12학년 2학기

최종 시험

모든 것이 한 번에 몰리지만 — 이때쯤이면 자녀도 버텨내는 요령이 생깁니다

06

선배들의 진짜 조언

졸업생들이 10학년 때 누군가 알려줬으면 했던 것들



선배들이 11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7가지

1

EE 주제 찾기는 12학년 가을이 아니라 11학년 여름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2

총점이 같더라도, 7점과 3점이 섞인 것보다 5점으로 고른 성적이 더 안전합니다 — 낙제 위험에 걸리는 과목이 줄어듭니다

3

CAS 프로젝트는 6개월째가 아니라 1개월째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

IB 코디네이터와 친해지면 좋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5

기출문제는 채점기준표를 같이 안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6

시험 기간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 실제 성적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7

과목별 조언이 필요하면 BHA 동문 멘토에게 물어보세요 — 저희도 그 자리에 있어봤습니다

과목별 짧은 팁



수학: AA와 AI

AA는 공학, 물리, 순수수학으로 가려는, 추상적이고 증명 중심의 사고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맞습니다. AI는 경영, 사회과학, 디자인으로 가려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운” 게 아니라, 그저 쓰는 역량이 다릅니다.



과학

IA(내신 평가)는 화려한 실험 장비보다, 명확하고 초점이 분명한 연구 질문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실험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거창한 실험을 대충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언어 습득

수업 외 몰입(드라마, 팟캐스트, 실제 대화)이 교재 위주 학습보다 효과가 큼니다 — 특히 구술 평가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대학은 자녀의 IB 성적을 실제로 어떻게 볼까요



HL 과목이 전공 필수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대 지망이라면 SL 미술 7점보다 HL 생물 6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건부 합격 시스템(영국 등)에서는 예상성적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전체 성적표, 에세이, 활동 내역이 예상성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대학에서 45점 만점 점수는 일종의 합격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학과나 최상위권 프로그램에서는 총점이 지원자 간 우열을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EE나 TOK 등급 하나로 합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좋은 EE 주제는 자기소개서나 에세이에 쓸 수 있는 진짜 좋은 소재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장 잘 도와주는 법

IB는 결국 자녀가 직접 해내야 하는 과정이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는 선배 부모님들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한 것들입니다.



압박보다 질문으로

"점수 어떻게 나왔어?" 대신 "오늘 뭐가 제일 흥미로웠어?"라고 물어보면, 자녀가 더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코디네이터를 함께 만나보세요

학기 초 면담에 동행하면, 학교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부모님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일정표를 같이 보되, 대신 해주지는 마세요

EEIA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정도로 돕고, 실제 작업은 자녀 몫으로 남겨주세요.



쉬는 시간과 수면을 지켜주세요

시험 기간일수록 충분한 수면이 성적에 직결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무조건 응원하지 마세요.



동문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세요

또래나 선생님께는 못할 말도,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선배에게는 편하게 묻습니다.



완벽한 점수보다 꾸준함을 칭찬해주세요

7점이 아니라, 어려운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과정을 알아봐 주세요.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보세요



The Lounge (라운지)

익명으로도, 실명으로도 질문할 수 있어요
— 재학생과 동문들이 실시간으로 답해줍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의 BHA 동문과 1:1로
매칭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ights (인사이트)

동문들이 직접 쓴 깊이 있는 글들 — 과목별
심화 정보, EE 주제 아이디어, CAS 프로젝트
사례 등.



자녀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BHA 동문회에 있는 모든 졸업생들도 이 2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통과해왔습니다 — 동문회는 자녀만의 길을 찾는 과정을 함께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bha-alumni.org · The Lounge · 멘토링 프로그램